



# 사찰음식을 통해 자유를 성취하기

: 국가무형유산 지정에 따른 사찰음식의 변형에 관한 연구

이준용

서울대 인류학 박사과정  
junyongzen@snu.ac.kr

## 연구개요

### 연구 배경과 개념 틀

이 연구는 ‘한국불교 사찰음식(temple food)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주제로 삼고, 그 사건이 사찰음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형하는지 검토한다.

개념 틀로는 푸코의 통치성과 자기수양을 도입하되, 기호인류학의 레지스터를 접목하여 의미를 변용할 것이다. 레지스터는 특정한 주체성·행위·관계 유형과 관련 지어 인식되게 하는 표현 양식의 묶음이며(Agha 2011), 이에 따라 통치성은 주체가 특정 레지스터를 선호하도록 배열된 통치 합리성 장치의 집합으로, 자기수양은 장치들 속에서 대안적 레지스터를 선택 및 조합하며 자기와의 관계를 변형해 나가는 자유의 기술로 재정의한다. 통치성과 자기수양 기술은 인프라로 가시화되는데, 이때 인프라는 특정 순환 체계 안에서 사람과 사물의 흐름을 조정하며 원하는 효과를 구성하도록 엮인 기호들의 집합이다(Larkin 2013).

이러한 개념 틀 아래, 연구자는 무형문화유산 제도가 사찰음식 문화의 생동성을 약화하는 동시에 단절 및 소멸을 방지하고 발전을 견인하는 그 양면성에 관해 미시적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강정원 2021).

### 연구 기간 및 방법

기간: 2025.8.2 - 2026.1.28. (6개월)

방법: 문헌 연구, 전남 S 사찰 공동체의 현장 연구

## 2. 전통 서사: 맥락화와 탈맥락화

### 서사의 문헌학적 검토: 역사의 연속과 불연속

초기경전에서, 사찰음식의 옛 이름인 ‘공양(供養)’은 ‘독-약(pharmakon)’처럼 수행을 위한 약이자 동시에 욕망을 일으키는 독인 양가적 대상으로서 발견된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음식을 혐오하여 자유를 성취하는 기술(饜食想)을 가르쳤다. 이는 받기·씹기·삼키기·소화하기의 각 단계를 세분화하여 이름 붙이고, 각각 음식과 관련된 더러움을 상상하는 혐오의 레지스터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욕망 반응을 약화하는 기술이다. 이처럼 감각 경험을 분절하고 평가·정동적 레지스터를 부여하는 실천은 특정 주체성과 지위를 구성하는 효과를 발휘한다(강윤희 2015).

증여물로서의 음식(供養)과 음식을 증여하는 행위(報施)는 모두 빠리어 dāna를 어원으로 가지며, 본래 둘은 양분할 수 없는 개념이었다. 기원전 4-5세기 붓다는 제자들이 자신이 먹을 음식을 직접 조달·조리·저장하는 것을 계율로 금지했고, 자신의 공동체가 외부인의 증여에 의존하도록 인프라를 설계했다. 그러면서도 큰 기근이 발생한 맥락에서는 해당 계율을 임시 완화한 바 있었다. 불교가 동아시아로 전파된 후, 8-9세기 중국 선종은 전혀 다른 정치·경제적 상황에 맥락화하고자 해당 계율을 포기하고 자급자족의 형식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유산의 전통적 원형과 관련된 ‘진정성(authenticity)’은 발견해야 할 본질이 아니라 사실상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자질이며, 관련 서사는 기원·내용·과정·연속성에 따라 구성되는 기호적 장치에 불과하다(Brulotte, et al., 2014). 오늘날 한국불교 사찰음식의 유산화 그리고 상품화라는 전무후무한 사건 또한, 역사적 특정 맥락을 취사선택하여 판단하기보다, 맥락화와 탈맥락화의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 연구질문

1. 사찰음식의 국가무형유산화 과정에는 어떤 주체가 참여하고, 어떤 지식과 권한을 가지며, 무엇을 평가하고 가치를 부여하는가?
2. 사찰음식과 관련하여 인용되는 전통 서사는 어떻게 맥락화되는가?
3. 사찰음식의 상품화는 불교적 자유를 어떻게 변형하며, 공동체는 어떠한 대안적 기술로 대응하고 있는가?

## 1. 국가무형유산화: 유산 보전과 측정 지표의 양면성

### 유산 보전: 상실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불교의 사찰음식은 2025년 5월 19일 국가무형유산 공동체 종목의 지역 연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62호로 고시되었다. 국가유산청은 법·지침·예산·심사로 대표되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유산 지정 및 전승 지원을 수행하며, 유산청·지자체·전문위원은 평가의 권한을, 종단 측 인사·조리 전문가는 전통 인용의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협력한다.

이는 유산을 보전할 공적 자원을 유입시키는 동시에, 상실의 위험을 과장하고 변이 가능성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상실되지 않아야 할 전통을 선택할 때 나머지는 자동 배제되며, 이는 공동체 내 특정 주체의 기여도와 암묵적 지식을 비가시화하여 상실되게 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의 소멸과 변형을 관리하고 허용하는 ‘적응적 해제(adaptive release)’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DeSilvey, et. Al., 2020).

### 측정 지표: 규제되는 것은 무엇인가?

국가유산청이 지정하고 공모의 심사기준으로 사용했던 지표는 총 5가지로, ① 주제 적합성(20점)·② 기획력(20점)·③ 지역 특성화 및 연계(30점)·④ 프로그램 구성(20점)·⑤ 예산집행 계획의 적절성(10점)이었다.

지표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수행적으로 구성해내는 가치화 장치다(이승철 2022). 사찰음식에 접합된 지표들은 브랜드·퍼포먼스·동원자 수·프로그램 운영 횟수 등 가시적이고 측정이 용이한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유산 진흥의 방향은 오히려 사찰음식의 전통적 지향을 규제하고 역기능적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다. 동시에, 외형을 아름답게 꾸며 드러내는 일을 현장의 주체는 보는 이들의 감정적 고양을 유발하는 ‘장엄(莊嚴)’의 의미로 전유하며 지표를 역이용할 수 있다. 이는 통치의 신호가 종교적 가치의 간섭으로 굴절된 잡음이자 불안정하지만 새 가능성을 여는 실천이다(Larkin 2008).

## 3. 상품화: 증여와 교환 그리고 인프라

### 상품화 다르게 보기: 어떤 자유를 생산하는가?

본래 불교의 음식은 증여를 통해 자유를 성취하는 기술(報施)의 매개였고, 무상증여(無住相布施)는 부정적 구속력이 부재하는 자유로운 수행 공동체의 구성 기술이었다. 2000년대 메가이벤트와 맞물리면서, 불교의 문화관광은 점차 상품화되었고, 2010년대 종단이 공식 운영하는 사찰음식 전문점을 열면서 고가 파인 다이닝 K-템플푸드 브랜드가 구성되었다. 즉 유산화 이전에 상품화가 선행되었던 것이다.

가치 책정 및 화폐 교환은 우려할 만 하지만, 화폐에 내재한 개방성과 신용은 부채의 감각을 계산 아래 종속시켜 기묘한 자유의 감각을 제공하기도 한다(에나프 2018). 화폐의 인프라는 미래 가치를 할인(discount)하여 현재 자본을 창출한다(Mitchell 2020). 할인에 저당 잡힌 시간성(chronos)이 주는 임시적 자유를 떠나, 사찰음식의 상품 형식과 인프라에 할인을 중단한 시간성(kairos)을 접합할 방법은 없는가?

### 상품 함께 만들기: 인프라로서의 전남 S 사찰 공동체

연구자는 전남 S 사찰에서 공동 상품화의 기술을 발견했다. ‘마을절’이라고 명명된 이곳은 재료 생산 농장으로부터 구성원 모두 조리에 참여하는 공양간에 이르기까지 동등하게 사찰음식의 상품화에 관여했다. 이곳의 인프라는 물질적 기반이 아니라 생계를 지탱하고자 임시로 엮인 사람들의 협업 네트워크 자체였다(Simone 2004). 그리고 그들의 생계는, 할인된 노동 가치를 투자하여 오늘 먹고 사는 것과는 달리, 할인 종단의 감각을 함께 가까스로 유지해 나가는 공동의 투쟁이었다.

## 참고문헌

- Agha, Asif, 2011, “Commodity Registers”, *Journal of Linguistic Anthropology* 21 (1).
- Brulotte, Ronda, et al., 2014, *Edible Identities*. University of Ulster, UK.
- DeSilvey, Caitlin, et al., 2020, “Anticipating loss: rethinking endangerment in heritage fu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6(1).
- Knox, Hannah, et al., 2023, “Infrastructure”, *Open Encyclo-pedia of Anthropology*.
- Larkin, Brian, 2008, *Signal and Noise*, Duke University Press.
- Larkin, Brian, 2013, “The Politics and Poetics of Infrastructure”, *Th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42.
- Mitchell, Timothy, 2020, “Infrastructures Work On Time”, e-flux Architecture.
- Simone, AbdouMaliq, 2004, “People as Infrastructure”, *Public Culture* 16(3).
- 강윤희, 2015, “커피 배우기”, *비교문화연구* 21 (2).
- 강정원, 2021, “무형문화유산 제도의 양면성”, *지방사와 지방문화* 24(2).
- 에나프, 마르셀(저), 김혁(역), 2018, *진리의 가격, 놀민*.
- 이승철, 2022, “사회적인 것을 계산하기”, *한국문화인류학* 55(1).